

# 뉴욕일보

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April 18, 2009



## 코리아 아트 소사이어티 한국 컬렉션 감상

코리아 아트 소사이어티(대표 로버트 툴리) 회원들은 17일 브루클린 박물관을 방문해 일반에게 잘 공개되지 않는 한국 컬렉션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0년 이상 한국 미술품을 수집해 온 브루클린 박물관은 아시아 외 처음으로 한국관을 오픈한 박물관이기도 하다. 또 한국 외 전 세계 박물관 중 가장 많은 한국 미술품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컬렉션의 일부만이 전시되고, 대다수 작품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최근 한국 정부는 5년에 걸쳐 브루클린 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미술품 컬렉션에 대한 목록을 만들기도 했다. 회원들이 한국 전시관 앞에서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코리아 아트 소사이어티>